KCI 학술지 발행기관들을 위한

체계적 학술지 운영·출판 안내서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안 내

본 안내서는 국내 학술지의 발행 및 관리를 체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위해, 국내·외 학술지평가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본 안내서에 실린 내용은 KCI 등재등급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아니므로, 각 학술지 운영 현황에 맞추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KCI 등재등급 유지 요건은 한국연구재단 및 KCI 홈페이지 내 '학술지평가 공고' 참고

목 차

C O N T E N T S

1 · 학술지 운영·출판 안내서 ····· 01

1 식별자 ····· 03
2 발행 규칙성 ····· 04
3 웹사이트의 투명성 ····· 05
4 이해관계자 ····· 11
5 동료심사 ····· 13
6 출판물의 학술성·전문성 ····· 15
7 연구윤리 관련 정책 ····· 16
8 오픈액세스(OA) 정책 ····· 17
9 저작권 정책 ····· 18
10 기타 정책 ····· 19

2 · 체크리스트 ····· 21

3 · (참고)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 25

01

학술지 운영·출판 안내서

KCI 학술지 발행기관들을 위한 **체계적 학술지 운영·출판 안내서**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요약표:

구분	내용
식별자 (Identifier)	• 유효한 ISSN(또는 ISBN)이 ISSN Portal(http://portal.issn.org)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ISSN 상태가 “확인됨(confirmed)”이어야 함
	• 온라인판 저널인 경우에는 eISSN(온라인판) 등록 완료
	• ISSN Potal에 등록된 학술지명과 학술지 웹사이트에 표기된 학술지명이 일치
발행의 규칙성	• 최소 연 1회 이상, 일정한 주기로 발행
	• 발행 주기를 명확히(연·월·일 포함) 규정 및 공개
	• 규정된 발행 주기 100% 준수(발행 지연 평균 21일 미만 유지)
웹사이트 투명성	• 편집위원 명단(성명·소속기관·직함)을 공개
	• 동료심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
	• 학술지 성격·범위·목표·독자층 소개
	• 저작권·이용권한·OA 정책 명시
	• 연구윤리·표절 방지 규정 공개
	• 논문 출판 비용이나 기타 부대 비용(무료 포함) 명시
	• 최근 2년간 발행 목록·초록·저자 정보 공개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회는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구성(경력·전문 분야 등 명시)
	• 편집위원의 1/3 이상은 학술지 발행기관의 외부 소속으로 구성
동료심사	• 모든 원고는 출판 전 최소 2인 이상의 동료심사 실시
	• 심사위원 중 1인은 학술지 발행기관 또는 저자와 무관
	• 심사 방식(공개 또는 익명심사 등),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정책을 보유하고 공개
저자 다양성	• 전체 논문 중, 동일 기관 저자 비율 40% 이하
	• 국내외 다양한 저자를 포함(국가·국제 공동체 참여)
출판물 학술성	• 동료심사를 거친 학술 논문·서적·데이터·소프트웨어 등 학술 콘텐츠를 출판
	• 최근 2년간 출판 내역(제목, 초록 및 개요, 저자 정보 등)을 공개
연구윤리	•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 및 적용
	• 연구윤리 규정과 표절 방지 절차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
	• 편집자·심사자·저자 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정책 명시
오픈액세스	• OA 저널인 경우, DOAJ 등재, 즉시 무료 열람,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 등을 권장
	• OA 저널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논문 초록과 메타데이터는 온라인 무료 공개
기타	• 투고 규정에 저작권 활용 동의 절차 포함
	• 발행 이력 및 온라인 접근성 확보

1 식별자(identifier)

(원칙) 학술지는 유효한 ISSN 또는 eISSN을 보유하고, 이를 웹사이트 등에 공개하는 것을 권고함

(설명) ISSN은 학술지(저널, 연속간행물)에 부여되는 8자리 고유번호로, 합법적인 학술지라면 ISSN이 있어야 도서관,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정식으로 색인되어 관리됨

- 유효한 ISSN을 보유하고, ISSN, 학술지 제목 등을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본 저널이 합법적인 학술지임을 보여줘야 함
- 온라인판을 가지고 있는 학술지라면, eISSN(electronic ISSN)을 등록해야 함

2 발행 규칙성

(원칙) 학술지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발행되어야 함

(설명) 학술지는 최소한 연 1회 이상 발행되어야 하며, 발행주기를 연·월·일 단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함

- 웹사이트에서 최소 2년간의 발행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규정 및 공개된 발행 주기를 100% 준수해야 함
- 발행 지연은 평균 21일 미만이어야 하며, 발행이 지연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사유와 함께 공개해야 함

※ COPE[1]에서는 해당 저널의 발행 주기가 명시되어야 하지만, 부실학술지는 발행 주기가 불규칙하다고 설명함[2]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발행일 평균오차 계산방법

- 규정상 발행일과 KCI 원문 등록일과의 오차 합계를 게재 논문건수로 나누어 계산
  - 평균오차 = (규정상 발행일-KCI 원문 등록일 간 오차일수 합계) / 게재 논문건수*
    * 게재 논문건수 : 평가대상 기간에 발행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건수
  - 평균오차 계산 예시

구분	연간 발간횟수	규정상 발행일	KCI 원문 등록일	논문건수 (A)	게재논문별 오차일수 (B)	오차일수 계 (C=A*B)	평균오차 (D=C/A)
2022년	3회	3월 31일 발행	2022년 3월 31일	10건	-	-	259/96 =2.7일
		6월 30일 발행	2022년 6월 30일	10건	-	-	
		9월 30일 발행	2022년 10월 5일	11건	5일	55일	
2023년	3회	3월 31일 발행	2023년 4월 1일	9건	1일	9일	
		6월 30일 발행	2023년 6월 30일	13건	-	-	
		9월 30일 발행	2023년 9월 30일	11건	-	-	
2024년	3회	3월 31일 발행	2024년 4월 10일	10건	10일	100일	
		6월 30일 발행	2024년 6월 28일	12건	2일	24일	
		9월 30일 발행	2024년 10월 7일	9건	7일	63일	
			2024년 10월 8일	1건	8일	8일	
계				96건	-	259일	

1) COPE는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의 약어로 학술 출판 윤리를 다루는 국제적인 비영리 단체임. 1997년 영국에서 의학저널 편집자들을 중심으로 출범했으며, 편집자, 출판사, 학회, 연구기관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 Publishing schedule: The periodicity of publication is not indicated and/or the publishing schedule appears erratic from the available journal content, cope, Discussion Document: Predatory Publishing.

3 웹사이트의 투명성[3]

(원칙) 학술지의 웹사이트에는 학술지 운영 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함

(학술지의 성격 및 범위) 웹사이트에는 학술지의 목적, 연구 범위, 대상 독자층을 명확히 설명해야 함

- 학술지가 다루는 학문 분야와 주제 등을 분명히 제시해야 함

(정책) 학술지 웹사이트에는 연구윤리 정책,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정책, 저자기여도, 데이터 공유 정책 등이 안내되어야 함

- 학술지 출판에 관한 정책, 연구윤리 규정 및 정책을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술지 발행기관의 저작권 정책을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해충돌 방지, 저자기여도, 데이터 공유 정책을 설명해야 함

(운영정보) 학술지 운영에 관한 정보들을 상세히 안내할 것을 권장함

- 편집위원의 소속, 직함을 포함하여 편집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편집 절차, 동료심사 과정 및 제도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함

※ "동료심사를 진행한다"라는 수준의 단순한 안내는 지양

(출판정보) 학술지 출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

- ISSN(또는 eISSN), 출판 주기, 발행 빈도(예: 연 4회), 발행기관을 공개해야 함
- 출판 지연 여부, 규칙적 발행 여부도 명확히 해야 함
- 최근 2년간 발행 목록, 초록, 저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권고함

(저작권 및 접근성) 저작권 정책과 오픈액세스 여부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저자의 저작권 보유 여부 및 이용 허락 범위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오픈 액세스 정책(구독 기반, 하이브리드, 골드 OA 등)의 공개가 필요함

3) 출처: DOAJ 웹사이트, https://doaj.org/apply/guide/

(데이터 관리) 데이터의 공개 여부, 관리 및 아카이빙 관련 정책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데이터 보관 방법을 공개해야 함
- 아카이빙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장기 보존 여부를 명시해야 함

(기타) 출판비용, 연락처 및 책임자 정보를 공개해야 함

- APC(Article Processing Charges), 심사료 또는 기타 부대비용이 있는 경우 금액과 결제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편집부 또는 학술지 발행기관의 공식 연락처(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공개해야 함
- 독자가 문의할 수 있는 창구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

COPE에서 제시하는 학술 출판의 투명성 원칙 및 모범 사례

1 저널명

저널 이름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독창성이 있고 다른 저널과 쉽게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저널의 출처, 범위 또는 다른 저널 및 조직과의 연관성에 대해 잠재적인 저자와 독자를 오도하지 않아야 한다.

2 웹사이트

- 웹사이트는 바이러스 및 악성 소프트웨어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안 측면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 웹사이트는 http가 아닌 https를 사용해야 하며 모든 트래픽은 https를 통해 리디렉션되어야 한다.
- 웹사이트 책임자는 웹사이트의 콘텐츠, 프레젠테이션 및 애플리케이션에 웹 표준과 모범 윤리 관행을 적용해야 한다.
- 웹사이트에는 독자나 저자를 오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 웹사이트는 다른 저널/출판사의 사이트, 디자인 또는 로고를 복사해서는 안된다.
- 다른 웹사이트에서 텍스트를 복사한 경우 원본 웹사이트에 대한 승인을 명시해야 한다.
- 이 외에도 다음 항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 저널의 목표와 범위
  - 저널의 독자층
  - 원고 유형(예: 다중 또는 중복 출판은 허용되지 않음)
  - 저자 기준
  - ISSN(인쇄 및 전자 버전의 경우 별도)

3 출판 일정

- 저널의 출판 빈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한 저널은 출판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

4 보관

- 저널 및/또는 출판사가 운영을 중단할 경우, 저널 콘텐츠의 전자 백업 및 장기 디지털 보존에 대한 저널의 계획을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PMC 및 Keepers Registry 등을 이용할 수 있음)

5 저작권

-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조건은 웹사이트와 콘텐츠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 저작권 조건은 웹사이트의 저작권과 별개여야 한다.
- 저작권 소유자는 출판된 모든 논문(HTML 및 PDF)의 전체 텍스트에 이름을 지정해야 한다.
- 저작권 조건이 별도의 형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COPE에서 제시하는 학술 출판의 투명성 원칙 및 모범 사례

6 라이선스

- 라이선스 정보는 웹사이트에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 라이선스 조건은 출판된 모든 논문(HTML 및 PDF)의 전체 텍스트에 표시되어야 한다.
- 오픈 액세스로 지정된 콘텐츠는 오픈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한다.
- 투고된 원고 및 출판된 논문을 제 3의 저장소에 게시하는 것에 대한 라이선스 정책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라이선스 조건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웹사이트의 올바른 라이선스에도 연결되어야 한다.

7 출판 윤리 및 관련 편집 정책

저널에는 출판 윤리에 관해 아래와 같은 정책이 있어야 한다. (예: COPE의 핵심 실무 지침)

- 저자 및 기여에 관한 저널의 정책
- 불만 및 이의 제기를 처리하는 방법
-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처리하는 방법
- 이해 상충에 대한 저널의 정책
- 데이터 공유 및 재현성에 대한 저널의 정책
- 윤리적 감독에 대한 정책
-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
- 출판 후 토론을 위한 옵션
- 수정 및 철회에 대한 정책

편집자와 출판사는 학술지에 있는 학술 문헌의 진실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진실성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때 처리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는 표절, 인용 조작, 데이터 위조/변조 등이 포함된다. 학술지의 정책이나 편집자의 진술은 그러한 위법 행위를 조장하거나 고의로 위법 행위가 발생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학술지의 편집자 또는 출판사가 저널에 제출되거나 출판된 논문과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 의혹을 알게 된 경우, 편집자 또는 출판사는 의혹을 처리할 때 COPE의 지침(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침)을 따라야 한다.

8 동료심사

동료심사는 투고된 원고의 학문 분야에 있는 심사자/전문가로부터 원고에 대한 조언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동료심사자들은 저널 편집위원회의 위원과 다르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동료심사의 구체적인 요소는 학술지 및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웹사이트에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 논문이 동료 심사를 받았는지 여부
- 동료 심사자 (예: 외부 전문가 또는 편집위원)
- 동료심사의 유형
- 동료심사 절차와 관련된 모든 정책
- 보충 자료가 동료심사를 받는지 여부

COPE에서 제시하는 학술 출판의 투명성 원칙 및 모범 사례

- 리뷰가 논문과 함께 게시되는지 여부
- 리뷰가 공개인지 또는 익명인지 여부
- 원고에 대한 결정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누가 관여하는지
- 동료 심사를 거치지 않는 특정 논문 유형과 예외의 경우

논문이 일반적인 동료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어떤 심사를 받았는지 명시해야 한다.

학술지는 원고 제출의 수락을 보장해서는 안되며, 동료 심사에 걸린 시간은 승인된 논문에 게시하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저자에게 지연 이유를 알리고 원하는 경우 원고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출판 날짜는 제출일, 승인일과 함께 논문에 게시되어야 한다.

9 액세스

- 모든 사람이 온라인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접근 권한을 얻는 방법(예: 등록, 구독 또는 유료 시청 비용)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오프라인 버전(예: 인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요금과 함께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10 소유권 및 관리

- 학술지의 소유권 및 관리에 대한 정보는 학술지 웹사이트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조직 이름은 저널 소유자의 성격에 대해 잠재적인 저자와 편집자를 오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학술지가 학회, 기관 또는 후원자와 제휴한 경우, 웹사이트에 관련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11 자문기관

- 학술지에는 학술지의 목표와 범위에 명시된 주제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회 또는 기타 자문 기관이 있어야 한다.
- 회원의 성명과 소속은 학술지 웹사이트에 제공되어야 한다.
- 목록은 최신 상태여야 하며 회원은 이에 동의해야 한다.
- 약탈적이거나 기만적인 학술지와 연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게시판을 검토하여 관련성이 있고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

12 편집위원회/연락처

- 학술지의 웹사이트에 편집위원의 성명과 소속, 우편주소를 포함한 편집실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3 비용

- 저자 수수료(예: 논문 처리 비용, 페이지 수수료, 편집 처리 비용, 언어 편집 비용, 색상 비용, 제출 수수료, 회비, 기타 추가 비용)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웹사이트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수수료가 없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COPE에서 제시하는 학술 출판의 투명성 원칙 및 모범 사례

- 저자 수수료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하며 논문 제출 시 제시되어야 한다.
- 향후 저자에게 부대비용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 비용에 대한 면제가 가능한 경우 이 정보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 면제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 면제를 신청하는 시기와 방법
- 저자 수수료나 면제 상태는 편집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이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14 기타 수익

-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익원은 저널 웹사이트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 예를 들면 비용, 구독, 후원 및 보조금, 광고, 재인쇄, 부록 또는 특별호 등
- 비즈니스 모델 또는 수익원(예: 재인쇄 수입, 부록, 특별호, 후원)이 편집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15 광고

- 학술지가 광고를 수락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 다음을 포함한 광고 정책을 명시해야 한다.
  - 어떤 유형의 광고를 고려하는가?
  - 광고 수락을 결정하는 사람
  - 콘텐츠 또는 독자 행동에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무작위로 표시되는지 여부
- 광고는 편집 의사 결정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어서는 안 되며 게시된 콘텐츠와 별도로 보관되어야 한다.

16 직접 마케팅

- 투고 권유를 포함한 모든 직접 마케팅 활동은 적절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출판사 또는 학술지에 대해 제공되는 정보는 진실해야 하며 독자나 저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출처: COPE, 학술 출판의 투명성 원칙 및 모범 사례, https://publicationethics.org/guidance/guideline/principles-transparency-and-best-practice-scholarly-publishing

4 이해관계자

(원칙) 편집인과 저자 등이 지켜야 할 출판윤리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공개해야 함

(편집인) 편집위원은 해당 학문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로 구성되어야 함

- 편집위원은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주로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소속인 것이 바람직함
- 편집위원의 최소 1/3 이상은 학술지 발행기관의 외부기관 소속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편집위원의 이름, 소속, 전문 분야를 공개하여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편집위원의 독립성과 책임, 편집인이 지켜야 할 이해충돌 방지 등에 대한 정책이 있어야 하며, 이를 공개해야 함[4)]
  - 편집위원은 논문 투고부터 출판 그리고 출판 후 사후 관리의 과정에 관련된 사람을 의미함
  - 편집인은 출판 전 과정과 게재된 출판물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짐
  - 편집인은 학술지의 내용과 출판의 모든 절차에서 외부인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출판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짐

(저자) 저자란 연구의 전체 또는 특정 부분에 상당한 지적 기여를 하고, 이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함

- 전체 저자 중 동일 기관의 저자 비율이 40% 이하인 것이 바람직함
- 국내외 다양한 저자가 참여하여 해당 학술지가 국가 또는 국제 공동체의 중요한 연구 결과물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저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정책을 보유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이효빈 외. 2020. 과학기술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p.12.

(심사자) 투고된 논문 원고의 학술적 가치와 연구수행의 진실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논문의 가치를 판단하는 동료 연구자를 의미함

- 심사자의 자격, 심사자의 책임, 심사자가 지켜야 할 이해충돌 방지 등에 대한 정책을 보유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심사자는 심사 대상 원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이를 편집위원장에게 밝히고 심사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심사자는 심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심사 대상 원고에 대해 반드시 기밀을 유지해야 함
  - 심사자는 심사평, 원고의 채택 가능성에 대해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됨
  - 심사자는 저자의 성별, 사상, 직업, 종교, 직위, 정치적 신념, 논문의 출처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5 동료심사

(원칙) 동료심사는 논문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동료심사의 제도, 정책, 심사 기준 등에 대해 보유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 (심사자의 배정) 모든 원고는 출판 전 최소 2인 이상의 주제에 맞는 전문가가 심사하여야 함
- (심사의 기준) 학술지 발행기관은 심사자가 투고된 원고의 독창성, 학문적 타당성, 학문 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의 기준을 제시해야 함
- (심사자의 배척) 심사위원 중 최소 1인은 학술지 발행기관 및 저자와 무관해야 함
- (심사정책) 동료심사의 방식(공개 심사, 익명 심사 등)에 대한 정책을 보유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타 정책) 심사의 기밀 유지 위반에 대한 정책, 저자 및 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역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웹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COPE의 동료심사 가이드라인

- 동료심사 제도와 절차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함
  1. 시점: 해당 학술지가 프리프린트인지 사전 출판, 사후 출판 제도인지 여부
  2. 익명성: 단일 암맹심사, 이중 암맹심사, 개방형 심사인지 여부
  3. 중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재 여부
     - 편집위원이 심사자와 저자 간 모든 상호작용을 중재
     - 심사자들이 서로 공개적으로 상호작용
     - 심사자와 저자가 모두 공개적으로 상호작용
  4. 출판: 심사 내용을 공개 또는 비공개할 것인지 여부
     - 심사 내용 비공개
     - 심사 내용 공개(익명)
     - 심사 내용 공개(심사위원 공개)
  5. 심사과정 관리: 학술지의 심사과정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여부
     - 학술지가 심사과정 관리
     - 제3자가 심사과정 관리
     - 저자가 심사과정 관리
  6. 심사내용의 소유: 심사내용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심사내용을 저널이나 제3자가 소유
     - 심사자가 심사내용 소유
     - 공유 또는 혼합

출처: COPE, Ethical Guidelines for Peer Reviewers.

동료심사의 종류와 특징

- 1. 단일 암맹심사 (Single Blind Review)
  - 심사자는 익명이고 저자는 공개된다.
  - 심사자가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그러나 저자의 성별·국적·경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불필요하게 가혹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 2. 이중 암맹심사 (Double Blind Review)
  - 심사자와 저자 모두 익명으로 처리된다.
  - 심사 편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그러나 저자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도용될까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 3. 삼중 암맹심사 (Triple Blind Review)
  - 심사자, 편집위원, 저자 모두 익명이다.
  - 잠재적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

- 4. 개방형 심사 (Open Review)
  - 저자와 심사자가 모두 공개된다.
  - 투명성을 높이고 심사자의 책임 있는 평가를 유도한다.
  - 그러나 보복에 대한 우려로 비판이 위축될 수 있다.

구분	특징	단점	장점
단일 암맹심사	심사자 비공개	심사자는 저자의 연구를 심사할 때 불필요하게 비판적이거나 가혹할 수 있음 심사자는 저자의 성별, 국가, 이전 출판 기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심사자가 자유롭게 심사함
이중 암맹심사	심사자와 저자 비공개	저자의 논문 아이디어가 심사자에게 노출될 위험	심사자의 편향성을 줄일 수 있음
삼중 암맹심사	심사자, 편집위원, 저자 모두 비공개	익명화하는 것에서 오는 복잡한 과정 심사 지연	잠재적인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음
개방형 심사	저자와 심사자 모두 공개	심사자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으로 비판을 보류하거나 억제함	표절을 막고 정직한 심사를 장려할 수 있음

출처: 이효빈. 학술연구와 관련된 동료심사(Peer Review)의 윤리기준에 관한 연구, NRF ISSUE REPORT 2021-3.

6 출판물의 학술성·전문성

(원칙) 동료 심사를 거친 학술 논문, 서적,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학술 콘텐츠를 출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2년간 출판 내역(제목, 초록 및 개요, 저자 정보 등)을 공개

7 연구윤리 관련 정책

(원칙) 출판물은 연구윤리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설명)

- (규정) 논문 투고에 대한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함
- (대응)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보유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함
- (이해충돌) 편집위원, 심사자, 저자의 이해충돌 관리 방침을 명시해야 함
- (제보)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했을 때, 이를 신고하고 제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함

8 오픈액세스(OA) 정책

(원칙) OA 저널인 경우,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색인을 권고함

(설명)

- 모든 논문은 무료로 열람이 가능해야 하며, 로그인 없이 접근이 가능해야 함
- OA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논문의 초록과 메타데이터는 무료로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어 있어야 함

9 저작권 정책

(원칙) 투고 규정에 저작권 활용 및 동의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국립중앙도서관 KJCI*에 저작권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KJCI(Korea Journal Copyright Information)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학술지 저작권 정보를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국제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을 명문화하고 공개하여 이용자와 학술지 발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학술지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향상에 목적이 있음 (웹사이트: https://copyright.oak.go.kr/introduce.do)

- 저작권 계약은 저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함
- 그간의 발행이력과 온라인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함
- KJCI에 학술지를 등재하기 위해서는 저널의 기본 정보와 함께 저작권 및 라이선스 정보가 명확히 등록되어야 함

저작권 정책

- (학술지의 책임) 학술지는 논문을 출판하고 배포하기 위하여 저자와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저작권)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분류됨
  - (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일신 전속성을 가지므로 양도할 수 없음
  - (저작재산권) 저작자가 저작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술지에 양도할 수 있음
-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
  - (양도) 학술지가 저작권을 양도받게 되면 저작재산권자로서 자유롭게 논문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음.
  - (이용허락) 저작자(저자)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면서 학술지는 논문을 사용, 수익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저작권법」 제45조, 제46조, 제57조, 제63조 등 참고

출처: 이효빈 외. 2020. 과학기술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pp.35~36.

10 기타 정책

(원칙) 학술지 발행에 필요한 기타 정책들을 보유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함

- (논문철회) 위조, 변조, 표절 등 심각한 부정행위 발생 시 철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려 표명) 진실성에 의문이 있으나, 최종 판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연구기관에서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검증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려 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독자 통신) 건설적인 비평 또는 질문, 우려 등에 성실히 응답하고 필요한 경우 공지하는 것이 필요함

우려 표명 및 독자 통신

● 1. 우려 표명

(정의) 논문에 명백한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나지 않고 논문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편집인은 논문 철회 대신 우려 표명 기사를 발표할 수 있음

(우려 표명 예시)

- 논문의 신뢰성에 상당히 의심이 가지만 저자의 소속기관이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하지 않는 경우
-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연구부정행위 혐의 조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중립적이지 못한 경우
- 논문의 진실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나 판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2. 독자 통신

(정의) 독자가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대한 논평, 질의, 비평 등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

(편집인의 역할) 해당 저자에게 비평에 대해 회신을 요청하고 무례하거나 부정확하고 중상적인 비평을 걸러내야 함

(저자의 역할) 독자로부터 받은 비평,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할 의무가 있음

(독자의 역할) 연구의 건설적인 도움이 되도록 책임 있고 건전한 의견을 개진해야 함

출처: 이효빈 외. 2020. 과학기술 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 p.30

02

체크리스트

KCI 학술지 발행기관들을 위한 **체계적 학술지 운영·출판 안내서**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구분	점검 항목	준수 여부	개선 계획
식별자	1. 유효한 ISSN(또는 ISBN) 등록되어 있고, ISSN portal에서 “확인됨”으로 표시 1-1. 온라인판 저널인 경우에는 eISSN(온라인판) 등록 완료	☐	
	2. ISSN portal에 등록된 학술지 제목과 웹사이트에 표기된 제목이 일치	☐	
발행의 규칙성	3. 최소 연 1회 이상, 일정한 주기로 발행	☐	
	4. 발행 주기 연·월·일 단위로 규정 및 공개	☐	
	5. 발행 주기 100% 준수 5-1. 발행 지연 평균 21일 미만	☐	
웹사이트 투명성	6. 편집위원 명단(성명·소속·직함) 공개	☐	
	7. 동료심사 절차 구체적 안내	☐	,
	8. 학술지 성격·범위·목표·독자층 공개	☐	
	9. 저작권·이용권한·OA 정책 명시	☐	
	10. 연구윤리·표절 방지 규정 공개	☐	
	11. 출판 비용(무료 포함) 공개	☐	
	12. 최근 2년간 발행 목록·초록·저자 정보 공개	☐	
편집위원회	13.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	☐	
	14. 편집위원 1/3 이상 외부 소속	☐	
	15.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 평가가 가능(경력·전문분야 공개)	☐	
동료심사	16. 출판 전 최소 2인 이상 심사	☐	
	17. 심사위원 중 1인은 발행기관 또는 저자와 무관	☐	
	18. 익명·공개 심사 방식과 독창성 평가 포함	☐	
	19. 심사 절차 및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	
저자 다양성	20. 전체 논문 중 동일 기관 저자 비율 40% 이하 20-1. 국내외 다양한 저자 참여 확보	☐	
출판물 학술성	21. 동료심사를 거친 학술 콘텐츠를 출판	☐	
	22. 최근 2년간 논문 제목 목록 보유 및 초록, 저자 정보 공개	☐	
연구윤리	23. 연구윤리 규정 제정·적용	☐	
	24. 표절 방지 절차 웹 공개	☐	
	25. 이해충돌 관리 방침 명시	☐	
오픈액세스	26. OA 저널인 경우, DOAJ 등재, 즉시 무료 열람 가능,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	☐	
	27. OA가 아니더라도 초록·메타데이터 무료 공개	☐	
저작권 및 기타	28. 투고 규정에 저작권 활용 동의 절차 포함	☐	
	29. 발행 이력·온라인 접근성 확보	☐	

※ 본 체크리스트는 KCI 등재 유지 조건이 아니며, 학술지 운영 현황에 맞추어 참고용으로 활용하기 바람

03

(참고)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KCI 학술지 발행기관들을 위한 **체계적 학술지 운영·출판 안내서**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2024.05.14.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학술지(이하 “학술지”라 한다)를 발행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이행하여야 하는 제반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지 등재제도”는 학술지의 관리체계 확보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학술지 평가”는 “학술지 등재제도” 운영을 위해 진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3.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및 “등재후보학술지”는 학술지 평가결과 일정 기준을 충족한 학술지를 말한다.
4. “신규평가”는 미등재 학술지가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받고자 할 때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계속평가”는 현재 등재후보학술지 이상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6. “재인증”은 우수등재학술지 및 등재학술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소화된 계속평가로 2020년부터 실시하는 평가를 말하며, 2019년까지는 계속평가를 의미한다. (개정 2017.04.06.)
7.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449호)」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서 정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조문신설 2016.10.18.] (개정 2017.04.06., 2024.05.14.)

제2조(적용 범위) 재단의 학술지평가를 거쳐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학술지를 발행하는 관리기관은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기관 의무사항

제3조(관리기관 의무사항)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술지 등재 취소, 등재 등급 하락 또는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2017.04.06.)

1. 학술지가 발행되면 해당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I : Korea Citation Index) (이하 “KCI”라 한다) DB에 21일 이내 등록하여야 한다. (동 내용은 학술지평가의 “발행의 규칙성 및 정시성” 산정 기준임)(개정 2020.03.30.)
2. 학술지평가의 계속평가 및 재인증 관련 계획에 맞추어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3. 실태점검 요청시 반드시 응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구비하는 등 실태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기관명, 학술지명 등 학회 또는 학술지 관련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재단으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5. 관리기관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재단은 관리기관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구체성과 엄정성 및 준수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6. (삭제 2016.10.18.)

제3장 학술지 관리

제4조(학술지 게재 논문 등록) 관리기관은 학술지가 발행되면 해당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발행일로부터 21일 이내에 KCI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논문은 학술지평가 계속평가(또는 재인증)시 활용된다. 단, 발행된 학술지 논문과 등록된 논문이 상이할 경우 학술지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03.30.)

제5조(기관명, 학술지명 등 변경) ① 관리기관의 명칭이나 학술지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단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때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변경내용, 사유, 행정적 처리사항 등) 및 관련 근거(내부 규정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변경내용을 KCI의 기관관리에서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대표자, 실무자, 사무실 주소, 이메일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KCI의 기관관리에 반드시 변경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 또는 학술지의 연구분야(대분야, 중분야에 한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단에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이 때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변경전·후 학문분야, 변경사유 및 최근 3년간 게재된 논문리스트와 각 논문별 학문분야)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변경내용을

KCI의 기관관리에서도 신청하여야 하고, 재단은 관리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관리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학술지의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이 변경되었을 경우, KCI의 기관관리에 반드시 변경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제6조(학술지 통합) ① 학술지가 통합될 경우는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03.30., 2024.05.14.)

구 분	대 상	인정여부	평가 관련 안내사항
우수등재 학술지	우수등재 + 우수등재	우수등재학술지로 인정	당초 예정된 학술지 평가시기를 3년 뒤로 연장 ※ 당초 2026년 평가대상인 경우, 2029년 평가대상으로 연장 (단, 1회에 한정하여 연장 인정)
	우수등재 + 등재	우수등재학술지로 인정	
	우수등재 + 등재후보	우수등재학술지로 인정	
	우수등재 + 미등재	우수등재학술지로 인정	당초 예정된 학술지 평가시기 적용
등재 학술지	등재 + 등재	등재학술지로 인정	당초 예정된 학술지 평가시기를 3년 뒤로 연장 ※ 당초 2026년 평가대상인 경우, 2029년 평가대상으로 연장 (단, 1회에 한정하여 연장 인정)
	등재 + 등재후보	등재학술지로 인정	
	등재 + 미등재	등재학술지로 인정	당초 예정된 학술지 평가시기 적용
등재후보 학술지	등재후보 + 등재후보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	당초 예정된 학술지 평가시기를 1년 뒤로 연장 ※ 당초 2026년 평가대상인 경우, 2027년 평가대상으로 연장 (단, 1회에 한정하여 연장 인정)
	등재후보 + 미등재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	당초 예정된 학술지 평가시기 적용
국외 학술지와의 통합	발행주체가 국내 기관인 경우 (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로 인정	당초 예정된 학술지 평가시기를 1년 뒤로 연장 ※ 당초 2026년 평가대상인 경우, 2027년 평가대상으로 연장 (단, 1회에 한정하여 연장 인정)
	발행주체가 국내 기관인 경우 (등재후보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	
	발행주체가 국내·외 기관 공동인 경우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하지 않음	당초 예정된 학술지 평가시기 적용

※ 통합하는 학술지 중 한 학술지의 권호를 반드시 연결하여 발행하여야 함. 새로운 권호로 발행할 경우 학술지 통합으로 인정 불가함.

② 제1항 이외의 경우는 재단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학술지 분할) ① 학술지가 분할될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10.18.)

구 분	인정여부		평가 관련 안내사항
	권호를 연결하여 발행하는 학술지	새로운 권호로 발행하는 학술지	
우수등재학술지	우수등재학술지로 인정	우수등재학술지로 인정하지 않음	- 권호를 연결하여 발행하는 학술지 : 기 평가주기에 따라 우수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 새로운 권호로 발행하는 학술지 : 신규평가 신청
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로 인정	등재학술지로 인정하지 않음	- 권호를 연결하여 발행하는 학술지 : 기 평가주기에 따라 등재학술지 계속평가(또는 재인증) 실시 - 새로운 권호로 발행하는 학술지 : 신규평가 신청
등재후보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하지 않음	- 권호를 연결하여 발행하는 학술지 : 기 평가주기에 따라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실시 - 새로운 권호로 발행하는 학술지 : 신규평가 신청

※ 학술지 분할 후 권호를 연결하여 발행하는 학술지가 없을 경우, 학술지 분할로 인정불가함.

② 제1항 이외의 경우는 재단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선정 취소 및 등재 등급 하락) ①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술지 등재 취소, 등재 등급 하락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04.06., 2020.03.30.)

1. 평가를 위하여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논문게재율 조작 등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포함) 서류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2. 실태점검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또는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3. 기타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학술지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4. 연구윤리 또는 출판윤리와 관련하여 연구부정 발생이 인지되어 학술지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개정 2024.05.14.)

② 제1항과 같이 학술지 선정이 취소 또는 등재 등급이 하락된 경우, 해당 관리기관에 대해서 학술지 평가의 신청을 최대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04.06., 2024.05.14.)

③ 제1항(학술지 등재 취소 및 등급 하락)과 제2항(학술지평가 신청 제한)의 조치 적용 시점은 학술지 평가 결과의 기준인 제10조(학술지의 인정) 제2항을 준용하거나 또는 학술지인증위원회의 심의로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22.04.14., 2024.05.14.)

제9조(게재논문의 연구부정행위) ① 학술지(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었을 때, 일정 사유로 수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도 관리기관은 아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2017.04.06., 2022.04.14.)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2. 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4.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6.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② (삭제 2016.10.18.)

③ 관리기관이 제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재단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법적 분쟁 등)가 있는 경우 재단의 인정을 거쳐 관련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2020.03.30., 2024.05.14.)

처리내용	비 고
-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에서 제외	※ 차년도부터 등재후보학술지 진입을 위한 학술지평가 신규평가에 신청할 수 있음

제9조의2(학술지 납본)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선정 시점이후에 출간되는 학술지는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각각 2부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6.10.18.]

제4장 학술지 평가

제10조(학술지의 인정) ①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재단은 선정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해당 학술지로 인정하며, 해당 기간동안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게재논문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6.10.18.)

② 계속평가 및 재인증을 통해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에서 탈락(또는 하락)된 경우, 재단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학술지까지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한다.

(예: 2016년 학술지 계속평가 결과 탈락된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학술지까지 인정함)

③ (삭제 2015.04.02.)

④ 해당 기관 규정에 의해 발행된 학술지(정규호 외 특집호, 특별호, 보완본 등 포함)라 할지라도 기관의 심사규정에 의해 정해진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학술지는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논문도 KCI에 등록할 수 있으나, 이 때 동 논문은 비정규 논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제11조(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①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계속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 후 1년 후부터 매년마다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가 실시된다.(예: 2017년에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2019년부터 매년 계속평가 실시)
2.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한다.

득 점	결과 적용	비 고
85점 이상 득점인 경우 (85점 ~)	등재학술지 선정	이후 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80점 이상 ~ 85점 미만 득점인 경우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이후 매년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실시
80점 미만 득점인 경우 (0점 ~ 80점 미만)	등재후보학술지 탈락	-

② 계속평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등재후보학술지 탈락으로 처리한다.

제12조(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재인증) ①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재인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2017.04.06., 2020.03.30.)

1.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3년(우수등재학술지의 경우는 5년) 뒤 (우수)등재재인증이 실시되며, (우수)등재재인증에서 등재학술지가 등재학술지로 유지 또는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매 6년마다 (우수)등재재인증이 실시되고 우수등재학술지가 우수등재학술지로 유지 또는 등재학술지로 하락한 경우 매 6년마다 (우수)등재재인증이 실시된다. (예: 2020년에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2023년에 재인증 실시하여 등재학술지가 유지되거나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되면 2029년에 재인증 실시) (개정 2020.03.30.)
2. 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20.03.30.)

- 우수등재학술지의 경우

득 점	결과 적용	비 고
90점 이상 득점인 경우 (90점 ~)	우수등재학술지 유지	이후 매 6년마다 우수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90점 미만 득점인 경우 (0점 ~ 90점 미만)	등재학술지로 하락	이후 매 6년마다 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 등재학술지의 경우

득 점	결과 적용	비 고
85점 이상 득점인 경우 (85점 ~)	등재학술지 유지	이후 매 6년마다 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85점 미만 득점인 경우 (0점 ~ 85점 미만)	등재후보학술지로 하락	이후 매 6년마다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진행

3. 평가결과, 학문분야별 상위 10% 내외 수준의 학술지에 대해 학술지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등재학술지로 지정할 수 있다. 우수등재학술지는 이후 매 6년마다 재인증을 실시한다. 단, 2020년 이전 계속평가를 통해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5년 뒤 재인증을 거쳐 우수등재학술지를 유지한 경우 매 6년마다 재인증을 실시한다. (개정 2020.03.30., 2024.05.14.)

② 재인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우수등재학술지는 등재학술지로 하락되고, 등재학술지는 등재후보학술지로 하락된다. (개정 2016.10.18., 2020.03.30.)

제13조(이의신청) ① 학술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관리기관은 학술지 평가결과, 명백한 평가오류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선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0.18.)

② (삭제 2014.08.07.)

③ 이의신청은 학술지평가 결과 발표 이후, 재단이 지정한 기간 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그 외 이의신청 관련 상세 내용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6.10.18.)

제14조(실태점검) ① 재단은 학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서류점검과 현장점검으로 진행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재단의 실태점검 요청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③ 실태점검의 대상기관은 실태점검을 위해 재단에서 요청한 자료를 구비하는 등 실태점검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④ 실태점검에 불응, 증빙자료의 미비 등 요청서류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실태점검 결과에 관계없이 우수등재학술지,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에서 취소될 수 있다.

⑤ 실태점검 결과에 상관없이 연구윤리 위배 또는 연구부정 정도가 심각한 사항이 있을 경우, 특별심의를 통해 제8조(선정 취소 및 등재 등급 하락)의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04.14.)

⑥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경고, 특별심사, 학술지 등재 등급 하락, 등재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 특별심사 조치를 받은 학술지는 학술지 평가주기에 관계없이 차년도 학술지 평가대상으로 포함한다. (개정 2020.03.30., 2024.05.14.)

⑦ 실태점검 결과, 학술지 발행기관의 윤리책무 위반 또는 방조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등재 취소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03.30.)

⑧ 실태점검 결과 조치의 적용 시점은 제8조(선정 취소 및 등재 등급 하락) 제3항을 따르나, 특별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의 적용 시점은 심의결과에 따라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04.14.)

⑨ 등재 등급 하락, 등재 취소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학술단체는 소속 회원에게 관련 조치 내용을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30., 2024.05.14.)

제15조(최소요건 평가) ① 학술지가 해외 학술지 DB(SCI(E), SSCI, A&HCI, SCOPUS)에 등재되었을 경우, 재단은 최소요건 평가를 통하여 해당 학술지를 등재학술지로 인정할 수 있으며, 최소요건 평가 탈락시 등재 등급 하락, 등재 취소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은 등재학술지 인정 또는 유지를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등재학술지 인정의 경우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등재학술지로 인정하며, 해당 기간동안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등재학술지 게재논문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6.10.18., 2020.03.30.)

② (삭제 2015.04.02.)

③ 해외 학술지 DB 등재 자격이 중지된 경우, 재단은 해당 학술지에 대한 등재학술지 인정을 취소하고 최소요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관리기관은 등재학술지 계속평가(또는 재인증)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2017.04.06., 2020.03.30.)

④ 국제적인 DB의 대상은 향후 추가할 수 있다.

⑤ 해외 학술지 DB에 등재된 학술지의 관리기관은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KCI DB에 논문을 등록하여야 한다. KCI DB에 논문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재단은 해당 학술지의 등재학술지 인정을 취소하고 최소요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6.10.18., 2020.03.30.)

KCI 학술지 발행기관들을 위한

체계적 학술지 운영·출판 안내서

발 행 2025년 10월

발 행 인 한국연구재단

발 행 처 대전청사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T. 042-869-6114 F. 042-869-6777

서울청사
(06792)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5
T. 02-3460-5500 F. 02-3460-5519

디 자 인 (사)아름다운사람들
T. 02-6948-9650